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2, 203~234.

한국인의 자존심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 민† **서 신 화** **이 수 현** **한 성 열**

우송대학교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존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논문들에서 자존심은 자존감(self-esteem)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본 연구 결과 자존심에 대한 한국인의 표상 및 개념, 자존감과 구분되는 차이점들을 발견하였다. 일상적 문헌과 글짓기 분석을 통해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표상을 알아본 결과 한국인에게 있어 자존심이란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요조건이자 평소에는 흠이 없고 반듯하게 유지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 개념으로, 자존심이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존심을 인식하며 자존심은 상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표상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자존심 경험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과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존심은 자기 가치를 손상 받았을 때 발생하며 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자존심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심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세 가지의 자존심 상함에 대한 대처 유형이 발견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자존심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자기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자기인식으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자존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존감과 달리 자존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가치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존심이 한국인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하며 그 만의 독특한 인식 체계 및 경험구조를 갖는 문화적 개념임을 밝혀낸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심, 자존감(self-esteem), 근거이론

† 교신저자 : 한 민,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300-718)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171, 서캠퍼스 교양관
Tel : 042-630-9793, E-mail : rainmaster75@hanmail.net

www.kci.go.kr

서 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한번쯤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존심과 관련한 기억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거나 불유쾌한 감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존심 경험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 학교의 자존심 등과 같이 개인이 속한 집단에까지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자존심은 한국인의 삶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개념이자, 한국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자존심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심리학 개념인 자존감(self-esteem)과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차용하여 자존심을 설명한다(송대현 외, 1992).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한 논문 안에서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이지원, 2011; 홍기원 외, 2003).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개념인 자존감은 자기를 의식하는 한 방법으로 자기상(self-image)이나 자기개념(self-concept)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자기상이나 자기개념은 자신의 특징, 성향, 행동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파악하여 개념화한 것으로(Weiten, 1986), 자신이 개념화한 특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그 모습을 스스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파악하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는 어떻게 보여 지고 있으며,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자기 평가의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자기 평가(self-evaluation)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와 관련된 사회비교과정(social comparison process)과 자기평가의 결과에 대한 만족에 있고, 자기 평가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을 갖는 정도를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고 부른다(Festinger, 1954). Gecas(1982)는 자존감이 개인이 지닌 유능함(capable)이나 효과성(efficacious)과 같이 능력에 관련된 '효능성에 근거한 자존감(efficacy-based self-esteem)'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치감에 관련된 '가치(value)에 근거한 자존감(worth-based self-esteem)'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worthiness)에 대하여 내린 긍정적인 평가(Gecas, 1982; Rosenberg, 1965) 또는 자신의 역할이나 수행의 만족스러움에 대한 자기가치의 평가(Torres et. al., 1995)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존감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 Alicia와 Peter(2002)의 연구를 보면, 자존감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자존감을 결과물(outcome)로 가정한 연구들에서는 자존감을 개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의 결과물이라고 보며 이는 개인이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등의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Coopersmith, 1967). 다음으로 자존감을 동기(motive)로 가정한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Elliot, 1986)을 들어 자존감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Tesser, 1988). 마지막 연구의 흐름은 자존감이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buffer)라는 가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지각된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주

www.kci.go.kr

위 환경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들에서 긍정적인 자기상과 일치되는 정보들을 더 잘 인식하여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여(Spencer, Josephs & Steele, 1993) 해로운 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ongmore & DeMaris, 1997).

이상의 세 가지 연구 관점은 심리 내적인 영역에서 경험되는 개인의 인식에 해당하는 자존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 또는 자기에 대한 내적인 평가와 관련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내적인 일치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의 관점에서 자존감은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Coopersmith, 1967; Epstein, 1973).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은 자존감을 심리 내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Ervin & Stryker(2001)는 자존감을 정체성(identity)과 관련지어 논의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자기는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을 갖는 다기 보다는 개인이 지닌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정체성들을 복합적으로 지닌다고 보는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개념화 하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위치 또는 역할에 의해 정체성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상황 또는 역할과 관계된 사회체계 또는 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Alicia & Peter(2002)는 스스로가 개념화 한 자기상의 모습 그대로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자기검증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자기검증 과정(self-verification process)에서 자존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기검증 경험은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이 일치 할 때 발생하며, 일치된 자기검증 경험은 개인에게 자신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이 불일치하여 자기검증이 부족해질 경우, 개인은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며 집단 안에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자존감은 일종의 완충장치로 작용하여 이전의 성공적인 자기검증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부족한 자기검증에서 발생된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거나, 자기검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데, 때로 이러한 노력은 집단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존감은 심리 내적인 성향으로 안정적인 개념인 동시에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 또는 개인이 인식하는 역할에 영향을 받아 변화 가능한 안정적이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존감 자체도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존감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자기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자존감을 분명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박아청, 1998).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존심이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정의된 자존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 자존심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일상생활의 의미전달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는 달리 한국문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존심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서로 다른 개

www.kci.go.kr

념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서구와 한국의 자기개념의 차이이다.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자존심 역시 자기인식 및 자기평가에 근거한 개념이다. 자기인식 및 자기평가는 자기(self)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서구인과 한국인이 '자기'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서 출발하는 자기인식과 자기평가가 동일할 수는 없다.

서양인의 자기(self)와 한국인의 나

서구의 'I'가 실체(entity)로서의 자기(self)로 규정된다면, 그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나'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나의 마음'으로 구성된다(최상진, 2000).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기(self)는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체로서 그 사람의 성격, 정서, 행동, 의지 등에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anziger, 1997). 자기(self)는 당사자인 나 자신의 이성적 인식을 통해 발견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 구조화되며(Harre & Gillett, 1994), 개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참조의 준거(reference)로 활용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서구문화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자기(self)를 구축하도록 개인에게 요구하며, 일상의 대화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빈번하게 하게 된다(Giddens, 1991). 서구인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self)를 발견하고, 발달시키고, 통합된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한 'I'의 과제가 되며, 자기(self)에 따라 행위(Wertsch, 1991)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이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

이에 비해, 한국인이 자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 마음'은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실체성이 약하다. 한국에서 마음이란 말이 주로 사용되는 맥락은 의도성(intentionality; Shweder, 1991)을 함유하는 의식과 의식의 상태를 지칭할 때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문화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사회적 이상이나 종교적 교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양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수용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개인의 마음을 사회의 질서나 목표에 합일화 시켜야 한다는 '사회지향적 자기관'을 발달시켰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인(私人; private person)이 아닌 공인(公人; public or social person)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남과 다른 나'를 구축하는 것보다 '남보다 나은 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자기인식은 서구의 자기(self)와 같은 객관적 실체와 같은 자기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인은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는 안정적이고 자명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참조준거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고맥락적이고 관계주의적인 문화에서 한국인의 자기인식은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비실체성, 가변성)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각이 어려우며, 지각된 경우라도 그에 대한 확신은 강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의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서구인의 self)에서 비롯된다기보다

www.kci.go.kr

는 추상적인 성향(disposition)으로 기술되고 파악된다. 즉 '나'는 '무엇'이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나'를 파악하는 대표적 인식양식은 추론(inference)이 된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다양한 행동이나 생각에 분산되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내재된 대표적인 성향을 추론을 통해 믿음의 형태로 추출한다. 요약하자면, 서구인의 자기를 '준거적 물성-자기(Referential Entity-self)'라 한다면 한국인의 자기는 '추론적 마음-자기(Inferential Mind-self)'라 명명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이러한 차이에서 서구인의 준거적 물성-자기는 대상과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 자기(transcendental self)'로서의 특성을 부여받는다(Holland, 1997). 반면, 한국과 같은 고맥락 관계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마음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규정된다(Kim, 1998; Jang & Kim, 1996, 최상진, 김기범,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기개념의 특성상 서구인들은 사회적 맥락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내적 일치성을 가질 수 있으나, 한국인들의 자기개념은 내적준거로서 작용하는 확고한 실체로서가 아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이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학문적 개념인 반면, 자존심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문화심리학은 문화를 인간의 심리와 분리 · 독립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문화는 인간의 심리를 구성하며, 따라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그 문화 내의 심리경험의 질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나름의 설명체계를 발달시켜 왔는데, 문화심리학은 그들이 왜, 언제,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를 당 문화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밝히고 설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최상진, 한규석, 1998). 다른 문화권에 비슷한 심리적 개념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와 관련한 동기, 감정 및 행위의 종류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문화에서 자존심이란 용어는 주로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자존심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를 통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비로소 인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자기관찰에서 비롯된 확고한 자기개념을 통해 인식되는 자존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또한 일상적인 관찰에 따르면, 한국인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경험'은 특정 종류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독특한 행동체계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허세나 과장된 행위로 손상된 자존심을 보상받으려 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행위들은 자존심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행위양식이며, 서구인들이 자존감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경험방식이나 행위양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자존심은 여러 면에서 자존감과 구분되는 점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자존심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찾

www.kci.go.kr

기 힘들며, 현재도 여러 심리학 논문에서 자존감(self-esteem)과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자존심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 한국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존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자존감(self-esteem)과 비교하여 자존심을 문화심리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존심의 사회적 표상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자존심의 경험방식과 과정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위해 각각 연구 1과 연구 2를 수행하였고,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존심과 자존감(self-esteem)의 개념적 차이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 1. 자존심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1은 사회적 표상이론(Social Representation Theory)의 관점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대한 사회적 표상들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표상이론이란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Moscovici가 제안한 이론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나 개념들을 분석하여 사회 현상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다. 사회적 표상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인지체계로서 객관적 현실이나 학술적 설명과는 독립적으로 논리체계와 언어적 표현체계를 갖는다(Moscovici, 1988). 어떠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그와 관련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상에 대한 전형적인 의미 및 설명체계를 제공해주며, 그와 관련한 경험들에 대한 전형적인 해석양식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적 표상이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언어(Rommetveit, 1984)라는 전제에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 표상이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적 맥락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정의와 성격 때문에 사회적 표상이론은, '문화적 마음'의 내용과 사고의 과정을 일상적 삶의 맥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떠내며', 이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심리학(최상진, 한규석, 1998)의 한 방법론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분석하여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와 자존심과 관련된 인지 및 경험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일상적 문헌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kr)에서 관련 키워드(자존심, 한국인의 자존심 등)로

1)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psychology.or.kr)의 심리학용어 사전에서도 Self-esteem과 자존심이 동의어로 소개되고 있다.

www.kci.go.kr

검색된 수필, 칼럼, 기사, 수기, 축사, 인물평 등 다양한 종류의 산문 24편을 선정하였다. 이 글들은 '한국논단', '사회평론', '수필시대', '고시연구', '고시계', '정신문화연구', '통일한국', '민족 21', '조선일보' 등 다양한 매체에 투고된 글들로 일상적인 맥락에서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작성자들은 대학생, 법조인, 언론인, 교수, 교사, 사회운동가, 북한이탈주민, 회사원, 고시합격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아우르고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글의 성격과 분량은 표 1-1과 같다.

짧은 글

서울 소재 S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심리학과목 수강생 22명(남 2, 여 20, 평균연령 42.27세(SD=10.47))에게 실시한 자존심 설문지 10문항 중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넣은 짧은 글짓기 자료를 수집하였다(문항 예: 자존심을 넣어 자유롭게 짧은 글짓기를 해주세요). 22명에게서 총 66개의 짧은 글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자존심의 성격과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30개의 짧은 글을 선정하여 질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짧은 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존심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구나', '자존심이 있지,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자존심을 아무데서나 세우는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이론의 관점에 따라, 첫째,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자존심'이 언급되는 문

표 1-1. 자존심 관련 글 관련 정보

No.	종류	작성자 직업	출처	분량	No.	종류	작성자 직업	출처	분량
1	수필	주부	생활지	1p	13	칼럼	시인	전문지	3p
2	수필	교수	생활지	2p	14	칼럼	교수	학술지	3p
3	수필	회사원	평론지	3p	15	수필	복지가	생활지	3p
4	수필	시인	평론지	2p	16	수필	교수	생활지	2p
5	수필	방송작가	평론지	2p	17	논설	시민운동가	일간지	4p
6	수필	대학생	평론지	3p	18	기사	기자	전문지	2p
7	축사	법조인	전문지	1p	19	수기	북한이탈주민	전문지	5p
8	수필	교수	월간지	4p	20	기고문	농민	전문지	4p
9	수필	수필가	월간지	3p	21	기사	연구원	전문지	2p
10	수필	교사	월간지	2p	22	수기	고시합격자	전문지	4p
11	수필	교수	생활지	3p	23	인물평	언론인	월간지	10p
12	칼럼	교수	전문지	2p	24	수필	시민운동가	월간지	3p

www.kci.go.kr

단 및 문장들을 분석하여 자존심의 속성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자존심과 관련되는 단어들을 분류함으로써 자존심과 관련한 상황들을 도출하고 자존심과 각 상황들이 관련되는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상적 문헌과 짧은글은 각 문장이 분석의 단위로 사용되었으며, '자존심은 ~이다', '자존심은 ~하는 것이다', '자존심은 ~하게 한다' 등으로 표현된 문장들을 추출하여 그 속성을 밝혔다.

결 과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

자존심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통해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본 결과 자존심의 속성은 크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자존심의 속성은 긍정적 속성 10가지와 부정적 속성 9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2].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표상하고 있는 자존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존심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산 사람의 필요조건이다(집단이나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며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매사에 당당하며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자존심은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자아통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 또한 자존심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비굴해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된다(무시당한다). 자존심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들의 자존심을 꺾어선 안 된다.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지나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거나 무리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객기, 똥고집).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는 것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허세 또는 자만이나 교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존심은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자존심 관련 경험에 대한 사회적 표상

다음으로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어떻게 인식되고 경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존심과 관련한 상황 및 표현들을 분석하였다. 자존심과 관련된 상황은 첫째, 자존심이 손상되는 상황, 둘째, 자존심이 유지 및 회복되는 상황,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각의 상황과 관련되는 표현과 이어지는 결과는

2) 표 1-2에서 제시한 각 속성의 순위는 중요도나 빈도와는 관련이 없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나 빈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자존심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www.kci.go.kr

표 1-2. 자존심의 속성

긍정적 속성	부정적 속성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필요조건)	버려야 하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꺾어선 안 되는 것	무언가를 놓치게 하는 것
긍지, 절개, 의기, 염치	무언가를 고수하도록 하는 것
자신의 입장, 견해, 정체성	무리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살 맛 나게 하는 것	손해가 되기도 함
자아통합의 노력을 하게 하는 것	객기, 똥고집의 원인이 됨
존엄을 지켜 자신을 자신이게끔 하는 것	지나치면 허세가 됨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자만, 허영, 교만이 되어서는 안됨
없으면 수치, 흠결이 되는 것	저급한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됨
최후의 무기(수단)	-

표 1-3. 자존심 관련 상황 및 표현

관련 상황	관련 표현	결과
자존심이 손상되는 상황 (예: 무시당함, 능력을 의심받음, 배척당함, 약점이 드러남, 가진 것 없음 등)	짓밟힌다 상한다 구겨진다 꺾인다 잃다 손상당하다	분노 인지적, 행동적 비약 관계의 악화 업무에 지장을 줌
자존심이 유지, 회복되는 상황	지킨다 드날린다 회복한다 세운다 보상받는다	내면의 품위(존엄)를 지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냄
자존심을 포기하는 상황 (예: 생존, 실리, 더 높은 가치 등)	버리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킴(얻음)

표 1-3과 같다.

첫째, 자존심은 주로 '자존심이 상처 입는 상황'을 통해 인식된다. 앞서 살펴본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에 따르면, 자존심은 인간의 존엄

www.kci.go.kr

을 지켜주는 것으로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의 자존심을 잘 지키는 것(유지)이 된다. 따라서 별다른 계기가 없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자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가 자존심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자존심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가 한국인들이 표상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상하다' 외에도 '짓밟히다', '구겨지다', '꺾이다', '잃다', '손상당하다' 등이 나타났는데, 이런 표현들은 자존심의 속성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체'로서 평소에는 '흠이 없고', '반듯하거나 곧은'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리하자면, 자존심을 잃은 상황이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흠 없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당한' 상황과 같다. 자존심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에 손상을 입거나 잃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 혹은 존재감에 손상을 입는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자존심이 상한 경우에는 화가 나고 비참함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이 뒤따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등, 인지적, 행동적인 비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관련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평소 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로, 자존심을 지키거나 회복되는 상황이 있다. 먼저 자존심을 지킨다는 표현을 보면, 한국인들은 경제적 곤란이나 대외적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자존심을 지킨다'는 표현을 쓰며, 이는 '자기다움', '인간의 존엄', '긍지', '내면의 품위' 등을 지키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내세울 때는 '자존심을 드날린다'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자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은 '자존심을 회복하다'와 관련된 것들이다. 자존심을 '회복하다', '세운다', '보상받다' 등의 표현은 자존심이 이미 손상당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즉, 손상당한 자존심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세운다'는 표현은 자존심을 손상당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존심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며, '보상 받는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간접적, 대리적인 방식으로라도 그 손상 분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자존심과 관련한 또 하나의 상황은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된 표현은 '버리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등이 발견되었다. 앞서 유추해 본 자존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자존심이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료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경우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믿을 때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생존이나 실리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보다 높은 어떤 가치이기도 하다. 생존이나 실리 때문에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때로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부정적인

www.kci.go.kr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저급한' 자존심을 버리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난독증이 있는 한 주부는 책을 읽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지식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주부는 아동용 그림책부터 읽기 시작했고 점점 어렵고 수준 있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결국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만약 어른이 돼서 아동용 그림책을 읽을 수는 없다는 저급한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을 것이다(자료 #1. '멋지게 버린 자존심'에서). 이 주부는 자아의 발전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덜 중요한 자존심을 버릴 수 있었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자존심을 주제로 한 일상적 문헌을 분석하여 한국인들이 자존심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이끌어내었다. 먼저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를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자존심을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자존심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존심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은 대단한 심리적 충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기관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문화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신에 대한 강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 환상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한국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일본과 유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의 강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이누미야 등, 1999; 조긍호, 명정완, 2001; 정욱, 한규석, 2005). 한국, 중국,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한 · 일 비교연구에서도 한국의 허구적 독특성 및 지각된 통제감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2009).

한국인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환상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민과 한성열(2009)은 한국인들의 자기가치감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이미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자기가치감이 손상당하는 경험이 한(恨)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한민, 한성열, 2007). 이러한 논의들로 미루어 자존심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자기가치감과 상통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자기가치를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존심 경험의 맥락은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과 회복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존심 관련 표현의 대부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및 손상된 자존심이 회복되는 상황과

www.kci.go.kr

관련 있다는 사실은 역시 한국인들의 심리경험에 자존심 상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손상된 자존심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동기 및 행동체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존심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버리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상되고 있는데, 이는 자존심 상함에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의 특성(예를 들면, 인격적 성숙)에 따라 저급하다고 인식되는 것부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까지 세분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심과 자존심 관련 경험이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연구 1의 결과로 미루어 자존심은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공유되는 인지체계, 경험체계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실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 자존심 경험 구조분석

사회적 표상이론을 적용한 연구 1의 결과,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와 자존심 관련 상황들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이 외에도 자존심에는 보다 다양한 동기와 심리적 과정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 1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그 이상의 동기나 심리적 과정을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자존심과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경험의 실질적 과정과 구조를 추출하여 자존심 관련 경험 전반을 기술하고자 연구 2를 수행하였다.

방 법

자존심 경험에 대한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앞서 짧은 글을 작성한 S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22명의 개방형 설문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고, 개방형 설문 결과 자존심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기술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자존심 관련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다.

개방형 설문

개방형 설문은 모두 9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당신은 '자존심'이라는 말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십니까?

②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③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④ 그런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그 당시에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⑥ 그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⑦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그 일의 영향)?

⑧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⑨ 지금 그 일을 다시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십니까?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및 절차

22명의 개방형 설문 응답자 중에서 '자존심'과 관련된 응답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www.kci.go.kr

6명(여 6, 평균연령 44세(SD=6.00))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이 모두 여성인 관계로 남성의 자존심 관련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모집한 남성 참여자 4명(평균연령 42.25세(SD=3.59))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 2-1과 같다.

면접은 연구자와 참여자 1대 1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질적 연구 및 근거이론을 공부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1인이 면접내용의 녹취 및 연구절차 확인을 위해 동석하였다. 면접 전에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면접내용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면접시간은 개인당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전부 녹음되었으며, 면접 종료 후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 면접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반구조화 면접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혹은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적 틀을 가정하고 중심 개념의 비교나 세부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식이다(Mason, 1999). 면접자는 자존심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존심을 떠올렸던 상황(자존심 상했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행동 및 감정을 경험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였다. 질문의 순서는 미리 정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나 개념에 주의를 기울였다. Spradley(1979)가 제안한 대조적 질문하기, 비대칭적 방향 바꾸기, 내용 요약하기, 관심표현하기, 인터뷰 대상의 언어로 다시 말하기, 가설적 상황 창조하기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현상에 관련된 추적질문과 이미 도출된 개념 및 사례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질문 역시 활용하였다.

표 2-1. 면접참여자 인적사항

No.	성별	나이	직업
1	여	45	유치원교사
2	여	54	주부
3	여	39	미술치료사
4	남	40	목사
5	여	47	프리랜서 작가
6	남	47	중학교 교사
7	여	41	주부
8	남	39	군인
9	여	38	주부
10	남	43	공연기획자

분석방법 및 절차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는 개방코딩과 축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진다. 개방코딩(open coding)이란 자료를 해체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비슷한 특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뜻한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의 분석절차는 수집된 자료를 한 줄씩 분석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문장 등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줄 단위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추출된 개념들을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들끼리 분류하여 상위범주를 만들고, 이론적인 배경 및 원자료와의 지속적인비교 검토를 거쳐 범주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축 코딩(axial coding)이란 개방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개방코딩에서 드러난

www.kci.go.kr

범주들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축 코딩은 개방코딩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중심현상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출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러한 조건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선택코딩의 절차는 현상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능을 하는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핵심범주의 발견'과, 축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핵심범주에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켜 서술적 문장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 윤곽', 본격적으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진술하는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결 과

개방코딩 및 축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64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와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의 내용을 바탕으로 축코딩을 실시하였고, 개방코딩 및 축코딩의 결과를 표 2-2부터 표 2-7까지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되며, '왜 그 현상이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자기가치감의 손상'이 도출되었다(표 2-2).

자존심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통해 인지된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자기가치의 불인정'과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남과 비교당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등의 '자기가치의 훼손'을 포함한다.

자기가치의 불인정

(사례 5) 제가 항상 시놉이나 대략적인 것을 주면 대부분 거의 다 OK였거든요..

표 2-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	범 주	하위 범주	개 념
자기가치감의 손상	자기가치의 불인정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
			나의 가치, 능력을 무시당함
	자기가치의 훼손	존중받지 못함	인격적 모독을 당함
			남과 비교당함
			약점을 지적당함

www.kci.go.kr

항상 출판사에서도 OK였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잘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여기서 거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요구가 온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구요. 진짜 자존심이 상하더라구요.

자기가치의 훼손

(사례 10) 공무원들이, 거의 군인과 같은 상황으로, 한국의 공무원들이 위계라인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심하게 한 단체 전체를 총괄한다고 나를 임명해놓고. 상급자의 명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이쪼가리를 하나, 나한테 공문을 던지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자존심 무지 상하죠. 무지 상하지.

현상

현상(phenomena)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적인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자존심이 상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 할 수 있다(표 2-3).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쾌감 및 억울함을 느끼고, 화를 내며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상을 공격하려 한다(표출형 정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비애감, 허탈감, 씁쓸함 등 부정적 정서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지는 자기초점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침잠형 정서).

표출형 정서

(사례 4) 일단 제가 또 꼬투리 잡히는거구나. 그러면 가슴이 둥둥둥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고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마다 열받고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화가 이렇게 슥하고 올라와요. 꾹 꾹 참는데 이게 더 이상 못 참을 지경까지 올라오면 화장실 갔다 오기로 해요. 거기서 얼굴도 좀 씻고, 진정하고... 신체 반응부터 먼저 오죠.

침잠형 정서

(사례 3) 나도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디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집에서는 귀한 딸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시집와서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하나 제 자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표 2-3. 현상

현상	범 주	하위 범주	개 념
자존심 상함	표출형 정서	불쾌감	기분상함, 기분 나쁨
		억울함	억울함, 답답함
		분노 및 공격의도	화남, 분노, 싸우고 싶음, 때려부수고 싶음
	침잠형 정서	자기초점적 정서	비애감, 허탈감, 씁쓸함
		자괴감	기죽음, 창피함

www.kci.go.kr

것이 아니라 딱 죽고 싶었어요. 그 동안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쳐서 '왜 현상이 지속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Strauss & Corbin, 1998). 자존심 상함의 맥락적 조건들은 상대방의 권위나 상대방과의 관계와 같은 '상대방의 특성'과 평소의 자기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나타났다(표 2-4).

자존심은 상대방이 부당한 권위를 내세울 때 더 상처를 받는다. 특히 상대방의 권위는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예: 직장상사, 시댁 어른).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누군가가 그 부분을 무시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된다.

상대방의 권위

(사례 10) 내 나름의 공연전문가인데, 공무원하고 같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전문가를 앉혀놓고 공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지. 상했었고.

(사례 7) 결혼하고 한 5년 정도는 저의 남편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가 (시어머니께) 엎드려라. 네가 무조건 잘 못했다고 그래라. 저는 어머님한테 화냥년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비슷한 행동을 제가 한 적도 없고... (중략) 저는 내가 왜 그런 말을 듣고도 엎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인식

(사례 1) 나는 전문대 나오고 그 일로 처음에 채용했을 때 문제도 됐었고 했던 것을(학력문제), 그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그걸 교장 선생님이 봐가지고... 이 선생님 충분히 능력 있어서 (4년제 나온 사람) 못지않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했고... 나도 그 교장 선생님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절대 안 건드렸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표 2-4.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	범 주	하위범주	개 념
상대방의 특성	상대방의 권위	상대방의 권위적 태도	원치 않는 일을 권위적으로 강요함
		상대방의 지위에 눌림	높은 지위로 찍어누름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적 특성	내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시함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 무시함
자기 인식	평소의 자기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	열등감이 드러남/ 자존심이 강함

www.kci.go.kr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쓰인다.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존심 상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감정의 표현'과 '삭임', 그리고 '사회적 표현'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표 2-5).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계적, 상황적인 이유들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상황에 맞는 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감정을 스스로 삭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한국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감정 표현

(사례 5) 저는 막 그 쪽에다 욕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드니까.. 책도 모르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 담당자는 제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그래 니네가 뭐 학습지나 만들고 그런 출판사니까 책이라는걸 제대로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그쪽) 자존심을 박박박박 긁는 거죠.

삭임

(사례 2) 그 동안 아무리 외도하고 그래도 절대 이혼할 것 같지는 않더니 마지막 여자 만났을 때는 이혼하자고 하더라구요. 그 때는 우리 애가 이제 대학 시험 볼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 볼 텐데, 애한테 영향이 많이 가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제가 참았죠 그냥.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더라구요 애들 아빠가 그냥. 그래서 와서 또 한 동안 살다가 큰 애가 이제 대학 가니까 이혼해도 되겠다 했는데 작은 애가 또 대학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또 못하게 돼요. 작은 애가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큰 애가 직장을 찾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표 2-5. 작용/상호작용전략

작용/상호작용전략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감정의 표현	직접적 표현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함	화를 내고 싸움
		문제해결을 시도함	감정(불만)을 토로함
			대화를 시도함
	간접적 표현	간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함	다른 행동을 함(화풀이-대치)
			자리를 박차고 나옴
삭임	표현하지 않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	화를 참음
			내색하지 않음
			잊으려 노력함
사회적 표현	사회적 표현	상대에게 맞춰줌	상대에게 맞춰줌
			상대에게 용서를 빔

www.kci.go.kr

대기업 같은 데서는 가정을 볼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직 까지는 이혼을 했나 안했나 이런 거 볼 거 같아가지고 아이한테 누가 될 거 같아서 또 이혼이 보류가 되는 거에요. 애가 직장을 가지니까 애가 연애를 하는데 또 결혼을 하는데... 엄마 마음에 그렇잖아요.

사회적 표현

(사례 3) 시댁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고사리를 삶는 것에서부터 과일을 깎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책을 잡히려면 책을 잡힐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 하나하나 자존심과 연결할 수 없으니깐 '제가 그걸 잘 못해요'. '할아버지들이 이가 약해서 괜찮으실 거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해요.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기분이 상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생각은 안하거든요.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자존심 상한 감정에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조절하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자기가치 회복에 대한 동기'와 '상황 및 관계 고려'가 도출되었다(표 2-6).

자존심이 상한 다음에는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입은 자기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내적 동기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치회복의 동기를 가지지만 모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어

표 2-6.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기가치 회복에 대한 동기	자기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공공의 가치를 지키려 함	상황이 너무나 불합리하여 견디기 어려움
		자기가치를 회복하려 함	나를 제대로 알리고자 함 계속되는 무시를 피하고자 함 자의식(내가 어떤 사람인가)을 떠올림
상황 및 관계 고려	상황에 대한 고려	상황을 파악함	상대의 지위 고려함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함 결과를 미리 생각함 행동의 범위를 결정함
	관계에 대한 고려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와 나의 관계를 떠올림 관계유지 여부를 고려함

www.kci.go.kr

디까지인지를 고려하여 행동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자기가치 회복에 대한 동기

(사례 10) 저는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든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처음만나는 사람이 야야거릴 수 있는 거(반말). 자기가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이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그거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상황을 뻔히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상황 및 관계 고려

(사례 4)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분이 참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능력 밖의 일 까지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가 다른 쪽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되게 무시를 해요. 그런 무시를 당하면 그때도 자존심이 좀 상하죠. 그런데 선배니까 거기서 말은 못하고. 한 다리 선배니까. 그때는 그냥 제가 말을 닫죠.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그 때는 말을 닫아요.

(사례 6) 내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었지요. 얼굴이 붉어지고 불쾌감이 올라왔지만... 그 당시는 표현 안 했고... 장모님이 윗분이시고 가족이고. 그랬다가는 또 내가 공격을 받겠지요. 그러면 하나도 해결이 안되니까... (중략) 그 이야기하니깐 지금도 억울해지네.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존심 상함의 결과는 '관계의 변화', '감정의 변화', '개인적 노력'으로 나타났다(표 2-7).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작용/상호작용전략).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자신이 가진 자기가치회복 동기와 상호작용이 예상되는데(중재적 조건), 이러한 고려에 따라 현상에 대처하는 전략과 결과가 달라진다.

관계의 변화(단절)

(사례 4) 이렇게 니가 선배면 선배지 나한테 이 따위로 밖에 못하냐 제대로 나를 지도해주려면 제대로 해라. 화가 나가지고. 한 1년 반을 매 주마다 당하니까 이게 훅 올라오는데 목회고 뭐고 끝이에요. 한 번 잘 걸렸다. 오늘 끝이다 나는. 미리 아내한테 다 얘기하고. 오늘 대박 사고 칠지도 모르니까 우리 짐 쌀 준비하자. 그러고 짐 싸서 올라왔어요.

감정의 변화(미해결된 감정)

(사례 1) 저는 우리 시어머님도 남편도 제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못해요.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를 못하는데 그 사

www.kci.go.kr

표 2-7. 결과

결과	범주	하위범주	개념
관계의 변화	관계를 단절함	상대방을 회피함	상대방을 회피함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음	상대방을 다시 보지 않음
	관계를 유지함	이해와 포용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함
			상대를 불쌍히 여김
		명목상의 관계 유지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함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함
감정의 변화	미해결된 감정	감정의 앙금이 남음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남
			용서할 수 없음
			상대방에 대한 원망
			슬픔, 좌절감, 자기연민
	자기향상적 감정	긍정적 감정	속이 시원함, 통쾌함
		자기가치의 확인	자신감, 용기가 생김
개인적 노력	상황변화를 위해 노력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함	나의 요구를 관철함
			적절한 타협안을 찾음
			행동전략을 바꿈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
		다른 방법으로 복수함	상대방에게 되갚아줌
	자아성찰	자기를 돌아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다음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함
			자기존중의 중요성을 느낌

람들이 빌지를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리고 용서라는 과정은 비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지를 않고.. (중략)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서를 안 해도 제 마음에서 그냥 좋게 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자비로써 그냥 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 노력

(사례 9) 제 태도 중에서... 집에서 책을 열심히 본다거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걸로 대체하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아이들도 잘 키워' 이러면서 내심 그런 걸로 스스로 갈고 닦는 것 같아요.

이러한 축 코딩의 결과들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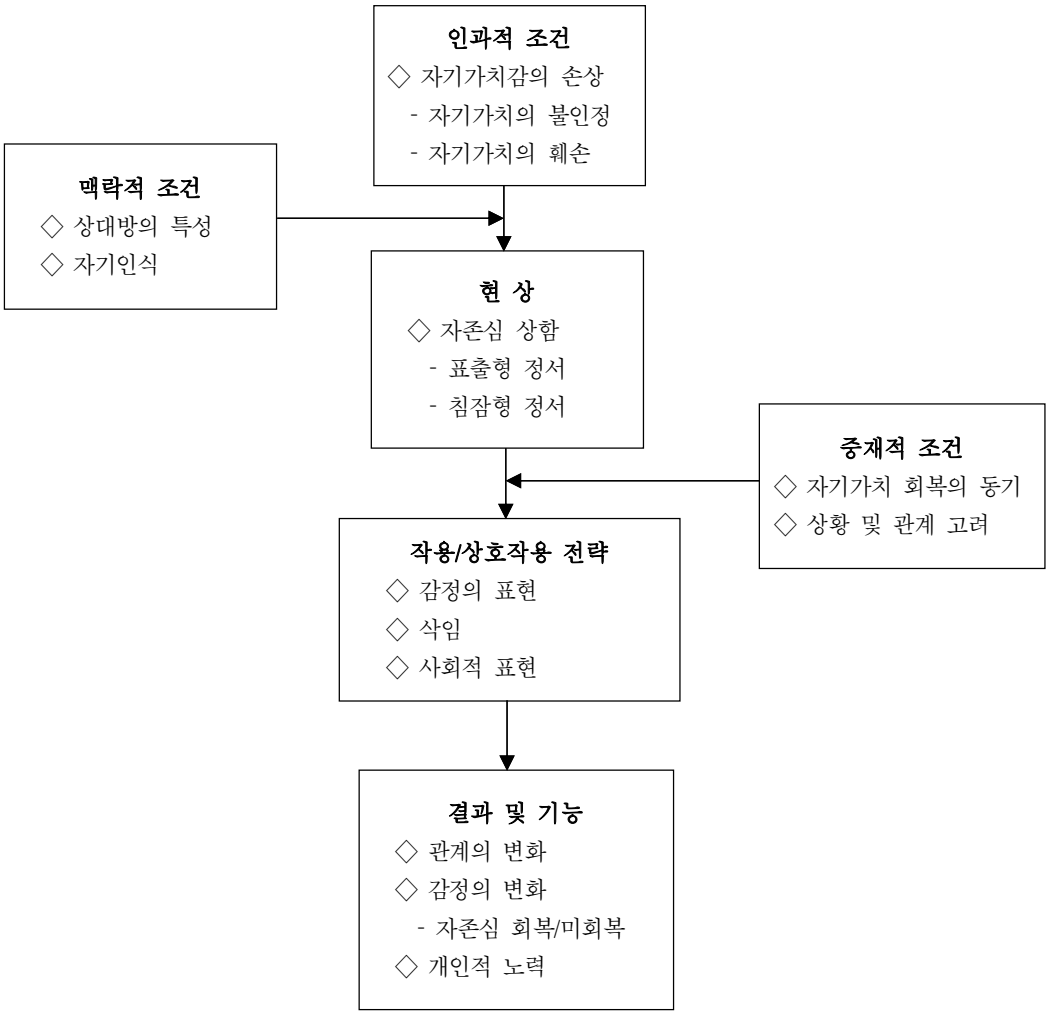

그림 1. 자존심 관련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과정분석

과정(process)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진행을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존심 관련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 인식 단계', '상황 파악 단계', '전략 선택 단계', '상호작용 단계'의 네 가지 하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상 인지 단계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존심은 쉽게 자각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치가 무시당한다든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존심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면서 자존심의 존재가 인식된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인식(높은 자기가치감 혹은 열등감)의 정도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방의 태도 및 상대방과의 관계에

www.kci.go.kr

따라서도 자존심 상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존심의 손상을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존심은 더 심하게 손상되며, 상대와의 관계는 이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한편, 손상당한 자존심은 분노, 좌절, 비애,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불러일으킨다.

상황 파악 단계

일단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부정적 정서들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다시 말해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고맥락 관계주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치밀어 오르는 부정적 감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상황 및 상대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감정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전략 선택 단계

상황 파악이 끝나면 감정표현의 수위와 취할 행동의 종류를 선택한다. 감정의 표현이 자유로운 상황일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수록 격렬한 감정표현과 적극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상적 맥락에서 개인의 감정표현의 범위는 제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정표현 및 자존심 회복과 관련된 행동들은 상황의 종류와 상대방의 특성 및 관계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지게된다. 예를 들면, 자존심 상한 감정의 표현과 자존심 회복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감정표현 및 행동은 극도로 억제된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중요도가 큰 경우일수록 그런 경향이 크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의 상한 정도가 너무 크다든가 자존심 회복의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면 강한 감정표현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호작용 단계

자존심 상한 이가 취한 행동전략이 상황 및 상대방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련의 결과로 이어지는 단계이다. 중요하지 않거나 소원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며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상대와의 관계는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그리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경우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이 덜 권위주의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면 자존심 상한 이의 감정토로와 자존심 회복 노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의 감정표현과 행동전략은 전자의 경우(덜 중요한 관계)보다는 덜 직접적이고 타협적이다. 만약 상대방이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관계유지를 위한 사회적 행위양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존심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개

www.kci.go.kr

인적 노력(마음수양, 인지변화 등)들이 뒤따른다. 이러한 단계들은 매우 빠르게, 때로는 반사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는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등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정분석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자존심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인지체계와 행위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존심 관련 경험의 유형

선택코딩의 과정 중에 자존심 관련 경험의 서로 다른 유형들이 도출되었다(표 2-8).

본 연구에서는 자존심 관련 경험의 유형까지만 기술하고 이어지는 선택코딩의 절차는 생략하였다[3]. 크게 자존심 상함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었는데,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자기가치 회복의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심 상한 경험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자기가치 회복 동기가 더 강한 경우를 적대적 회복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공격적 감정표현과 적극적 문제해결전략,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유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등이 특징이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자존심은 회복되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복합적 감정을 갖게 된다.

(사례 10) 이게 뭐냐? 회의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나더러 그만하고 나가라는 소리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회의 할게 없습니다." 하고 내 일어났어. 일어나면서 거기가 이층이었는데 일층 내려오면서 소리를 그냥 "아이~~씨" 하고 나갔지. 나가고 나서 도저히 열이 받아가지고 15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왔어. 와갖고, 뭐 "느낌 봐서는 그만 두란 소리같다. 곧 내 거취에 대해선 내가 정하겠다. 내 거취에 대해서는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내가 이 회의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지.

둘째,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거나 억제하는 회피형이 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손상된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존심 손상을 초래한 상대방과는 명목상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자존심 회복과 관계된 직접적인 표현은 최대한 삼간다. 손상된 채로 남아있는 자존심 및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보상을 얻으려 하기도 한다.

(사례 1)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공직이 아니었으면, 외국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소문이 한 번 나면은 쫙 돌잖아요. 선생님 둘이 싸웠다더라, 그리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 이라는 그것 때문에 한국 학교 자체가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그 이유는 자존심이 다양한 동기와 맥락이 관련된 심리경험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경험방식은 최소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출되는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 및 범주들의 가설적 관계가 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분석절차(핵심범주의 발견, 이야기 윤곽,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들은 특정유형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www.kci.go.kr

표 2-8. 자존심 상함에 대한 대처 유형

	적대적 회복형	회피형	타협적 회복형
인과조건	자기가치의 손상	자기가치의 손상	자기가치의 손상
맥락조건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현상	자존심 상함	자존심 상함	자존심 상함
중재조건	자기가치 회복 동기	상황 및 관계 고려	상황 및 관계 고려 자기가치 회복 동기
작용/상호작용 전략	감정의 표현(공격적)	간접적 표현(대치) 삭임, 사회적 표현	감정의 표현(타협적)
결과	자존심의 회복 관계단절 혹은 유지 복합적 감정	자존심 미회복 명목상의 관계유지 개인적 노력 미해결된 감정	자존심의 회복 관계를 유지함 개인적 노력 자기향상적 감정
특징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보다 자존심 회복 동기가 더 강함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자존심 회복이 불가능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자존심 회복

것 때문에 꾹 참고, 집에 바쁜 일 있다고 했던가 아프다고 했던가 하고 나와 버렸어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중략) 그냥 분풀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다 보니까 오래가더라고요. 저녁에 잠도 못자고.

세 번째 유형은 타협적 회복형이다. 이 유형은 상대방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상처입은 자존심도 해결하려는 타협적 전략을 특징으로 한다. 강렬하고 적대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온건한 감정 표현과 우회적, 간접적인 행동전략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수준의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들이게 되는 이유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계유지에 대한 당위성, 상위가치의 추구 등이 있다.

(사례 4)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전세금 떼가 지고 (아내의) 작은 오빠 사업하는데다가 그 사업자금을 대줬어요.

(중략) 작은 오빠가 절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길 가다가 만났는데 술 먹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형님 드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사 드릴게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두 번씩은 불러내가지고 술을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은혜로 갚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나한테 기회만 오면 복수할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복수하

www.kci.go.kr

기 보다는 제가 괴로웠던 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그걸 아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갚아줬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논 의

연구 2에서는 일반인의 자존심 관련 경험을 근거이론 절차를 통해 분석하여 자존심 관련 경험의 유형과 구조를 밝혔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패러다임 모형으로부터 자존심 관련 경험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자존심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는 '자존심 상함', 특히 자존심이 상한 정서를 중심현상으로 간주하고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들을 도출하였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인과조건으로는 '자기가치감의 손상'이, 인과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조건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방과의 관계와 같은 '상대방의 특성' 및 평소에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 나타났다.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존심 상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로서 '감정의 표현', '삭임', '사회적 표현'등을 볼 수 있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는 중재조건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치 회복의 동기'와 '상황 및 관계에 대한 고려'였다. 마지막으로,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방과의 '관계의 변화'와 자존심 회복 여부와 관계된 '감정의 변화', 그리고 자존심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과정분석의 결과, 자존심 관련 경험의 과정은 자존심이 상함을 인지하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손상인지 단계',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파악 단계', 파악된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략선택 단계', 마지막으로, 선택한 전략에 따라 취한 행동이 상황 및 상대방과 상호작용하여 결과로 이어지는 '상호작용 단계'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선택코딩 과정 중에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자존심 상한 경험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적대적 해결형, 회피형, 타협적 해결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중재적 조건에 따른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대적 해결형은 강한 자기가치 회복 동기에 따라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유형이며, 회피형은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감정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존심 상한 감정을 속으로 삭이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유형이다. 타협적 해결형은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자존심도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결과, 연구 1에서 예상된 자존심 경험의 독특한 인지체계와 경험체계 및 의사소통 체계가 실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구분되는 자존심의 특징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자존심은 평소에는 잘 인지되지 않다가 손상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인지된다.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 자기가치를 인정받지 못하

www.kci.go.kr

거나 존중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과 함께 인식된다. 다시 말해,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가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나 대접을 받을 때 유발되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자존심이 개인이 수립한 자기상이나 자기개념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평가에서는 무엇이 평가 기준이 되느냐가 특히 중요한데, 이는 사회비교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과정에서 자기평가의 기준이 되는 타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개인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개인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고양욕구 또는 자기방어욕구에 따라 상위타인(상향비교)/하위타인(하향 비교)을 선택하는 사회비교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은 사회비교 과정에서의 평가기준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차이점을 지닌다. 즉, 자기평가의 기준이 되는 타인의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회비교과정을 통한 자기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경험된다. 면접참여자들의 자존심 경험에 관련된 타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비교과정의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신보다 낮거나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치의 불인정' 범주에서는 자기를 평가한 타인을 자신보다 능력 또는 인격 등이 부족한 낮은 위치의 타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기가치의 훼손 범주'에서는 자기를 평가하는 타인이 자신보다 지위나 권위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들 자체의 능력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그 위치만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연구 1에서 논의한 한국인들의 높은 자기 가치감(한민, 한성열, 2007)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들의 자기평가는 자신의 객관적 현실에 바탕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데(한민, 한성열, 2009), 자존심 관련 경험은 이러한 자기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자존심 유발 경험의 대부분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인식하며 이는 대개 부정적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표 2-3). 자존심 상하는 경험은 사회비교과정에서 하위 타인의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진 하향비교의 실패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자존심 현상은 장은영과 한덕웅(2004)이 수행한 사회비교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의 부적 정서를 구성하는 요인에 속한 정서의 개념들과 유사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적 정서(당혹, 우울, 분노, 열등, 자기연민, 불안)는 사회비교에 실패할 경우에 높게 발생하였고, 당혹정서(황당함, 어이없음, 기막힘 등), 우울정서(상심, 울적함, 서글픔 등), 분노 정서(분함, 울화가 치밈, 노함 등)는 하향비교일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혹정서와 분노정서는 하향비교에 실패할 경우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의 현상인 표출형 정서를 설명해 준다.

또한, 침잠형 정서에 속하는 열등정서(기죽음, 위축감, 열등감, 무능감 등)는 상향비교에 실패한 경우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방어의 목표 보다는 자기 향상의 목표를 가지고 상향비교하여 실패 한 경우에 가장 높게 열등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는 자기향상 또는 자기 방어의 동기적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로 자존감에 보다 근접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자존심 상함의 현상

www.kci.go.kr

으로 나타나는 정서는 사회비교와 관련된 부적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자존심이 사회비교 과정의 동기로 작용하는 자존감과는 달리 사회비교 과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결과 차원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자존심 관련 경험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관계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타인 인식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자기인식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의 자기개념은 개인주의 사회의 독립적 자기와 같이 독자적인 자기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기 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그 맥락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이나 위치에 의해서 정해진다(최상진, 김기범, 1999). 이렇듯 한국인의 자기개념 속에는 이미 자기와 외부세계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기는 서구문화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적인 맥락과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계주의적인 자기는 기존의 상호의존적 자기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자기 구성의 핵심 요소가 관계 내에서의 자기 역할 및 기능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관계주의적인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확인받는 것으로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기상 또는 자기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관계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자신이 지닌 사회적 위치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며, 각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부여된 문화적 의미가 자기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인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상의 모습대로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자기검증의 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성공적인 자기검증의 경험은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이 일치될 때 발생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대방의 권위나 지위에 의해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 맞게 형성한 자기 정체감과 일치되는 자기검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인은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거나 집단 안에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경험이 '자존심 상함'이다. 따라서 자존심은 자존감처럼 개인의 심리내적인 성향처럼 안정적이기 보다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나 상황, 관계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존심 관련 경험에는 상황 및 관계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관계주의 문화의 보편적 특성들 외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대인 관계적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동의 평가는 다른 영역보다 엄격할 것이라 예상된다(조자의, 한성열, 2008). 이러한 경향은 상한 자존심에 대한 대처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문화는 외부적 충격을 외향적으로 발산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내향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발달시켜왔다(이규태, 1983; 이영의,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한국인들은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삭이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자기가치 회복 동기가 더 큰 경우에는 삭임이나 사회적 표현이 아닌 적대적 방식의 표현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자존심은 생생한 삶의 맥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식 및 경험체계를 갖

www.kci.go.kr

는 문화적 개념인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존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인에게 있어 자존심이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꺾어서는 안 되며 존중 받아야 하는 자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으로 표상화 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 정도가 심리 내면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평상시에도 그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자존감과 같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의 특성에 따라 인식되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자존감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연구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한국인에게 자존심은 타인과 맺는 관계 또는 상황으로 인해 자기가치감이 위협받거나 손상 받는 경험과 연관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되는 맥락적 개념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2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존심은 경험하는 구조와 과정 단계가 존재하는 개념으로 단편적인 이론적 정의만으로는 그 특성을 모두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존심을 경험하는 구조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자존심이 지닌 개념적 특성이 보다 명확히 나타남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존심 경험의 지속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자존심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 인식이 중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적 특징이 자존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주의 문화권에서 자기 인식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자기 인식과는 달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따라 복합적이며 가변적으로 자기를 인식해가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 따라서 관계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사회비교 과정에 따르는 자기 평가와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로 형성된 자아정체감과 일치되는 관계 경험에서 비롯되는 자기검증의 과정이 자기 인식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존심은 관계주의 문화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개념이라 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문화 심리학적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한국인에게 있어 자존심이란 개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경험으로써 작용한다. 실제로 심층 면접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한참 전의 사건인 자존심 상하는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등,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했을 때의 감정을 격렬하게 재경험 하였는데, 이런 감정의 재경험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존심 상함의 현상을 경험한 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간접적 표현이나 삭임, 사회적 표현 등의 전략을 선택하여 자존심 상함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로 가슴속에 미해

www.kci.go.kr

결된 감정이 남아, 자존심 상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시 그 감정들을 경험하였다. 다시 말해, 자존심 상함이란 것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 또한 대인 관계적 사건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 및 임상심리학 분야에서는 자존심을 단순히 개인의 열등감 또는 낮은 자존감의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이동식, 1989), 자존심 경험은 한국인의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관계에 대한 인식 등 문화적인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한국인의 임상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결과들에서는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 즉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타인의 개입 없이도 자신이 설정한 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자기가치의 평가(self-evaluation)가 만족스럽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적인 일의 실패를 내적 능력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스스로의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대체 되면서 자존심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존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표상과 경험 구조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기에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후의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전환에 관한 언급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존심 상함을 경험한 후에 자존심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요인인 중재적 조건이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존심 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 고려에 초점이 맞춰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자기가치 회복의 동기'라는 심리 내적인 요인 자체도 중요하며 이것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현상에 대처하는 전략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가치 회복의 동기 중 심층 면접시 등장한 '자존심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라고 언급된 개념들(오기,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 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을 배제하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이 일부 반영 되었기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존심에 대한 양적인 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구본권 (1995). 과학 고등학생의 자존심과 방어기제. 인간발달학회, 2, 62-82.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송대현, 박한기 (1992).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韓國老年學. 12(1), 79-96.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9).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한 한일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15-146.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www.kci.go.kr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이동식 (1989).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이영의 (2011). 한국인의 대표 감성으로서의 한(恨)의 구조. 호남문화연구, 49, 149-186.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27-153.

조긍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조자의, 한성열 (2008). 행위자의 화(火)가 한국 대학생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47-75.

정 욱,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한 민, 한성열 (2007). 신명에 대한 문화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83-103.

한 민, 한성열 (2009). 신명의 심리학. 서울: 21세기 북스.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041-1068.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Danziger, K. (Eds.). (1997). The historical formation of selves. In R. D. Ashmore, & L., Jussim,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37-159.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Elliot, G. C. (1986). Self-esteem and self-consistanc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218-297.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The American psychologist,* 404-416.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Gecas, V. (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www.kci.go.kr

Holland, D. (1997). Selves as culture: As told by an anthropologist who lacks a soul. In R. D.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61-190.

James, W. 정양은 역 (2005). 심리학의 원리. 서울: 아카넷. *Principle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 Press.*

Longmore, M. A., & Alfred, D. (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2),* 172-184.

Mason, J. (1999).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전은 1996년에 출판).

Moscovici, S. (1988). Notes towards a descript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211-250.

Slagle, S. J. (1965). Self esteem and patterns of defense. *Unpublished doctro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Rommetveit, R. (1984). The role of language in the creation and transmiss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pp.331-3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pencer, S. J., Robert A. J., & Claude M. S. (1993). Low self-esteem: The Uphill Struggle for Self-Integrity. in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edited by Roy F. Baumeister. Plenum, 21-36.

Spr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181-227.

Thoits, P. A. (1994). Stressors and Problem-Solving: The Individual as Psychological Activi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5(2), 143-160.

Torres, R. & Fernandez F. (1995). Self-esteem and value of health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 health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6*(1), 60-63.

Weiten, W. (1983). 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Adjustment in The 80s.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Adjustment in The 80s, 522.*

Wertsch, J. V. (1991). *Voices of the mind: A sociocultural approach to mediated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 2013. 04. 16
1 차 심사일 : 2013. 05. 15
게재 확정일 : 2013. 05. 2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2, 203~234.

A Qualitative Study of Conceptualizing Jajonshim

Min Han **Shinhwa Suh** **Soohyun Lee** **Seongyeul Han**

Woosong Universit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jajonshim' which is different from self-esteem in its social representation and concept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refine the notion of 'jajonshim', we first referred to literature and short essay on jajonshim and analyzed its cultural meaning and social representation in Korea. As a result, jajonshim was considered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beings in Korean culture. Although jajonshim was not well recognized normally, it became critical when it was threatened by others and considered to be what one must save as well. Furthermore, the ground theory designed by Strauss and Corbin was utilized in order to analyze Korean interviewees' experience of jajonshim. Koreans believed that their jajonshim was injured when others disrespected their values, which consequently produced negative emotions. When their jajonshim was damaged, people also used 3 coping strategies to recover it. Based on the results, jajonshim was distinguished from self-esteem. First, jajonshim is a type of self-awareness people experience when they are disrespected; thus, it is different from self-esteem which is maintained stable regardless of any events or situations. Second, unlike self-esteem which is solely evaluated by oneself, jajonshim is evaluated by other people's point of view. This study shows that jajonshim exists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and has significance in clarifying the cognitive structure and experience process of jajonshim.

Key words : jajonshim, self-esteem, ground theory

www.kci.go.kr